

종합·해설



통합진보당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공동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위 전자투표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취재진의 추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통합진보 광주·전남 일부 당원들 패닉

지난 4·11 총선 광주·전남에서 2명의 지역 당선자를 배출하고 정당 득표율 18%가 넘는 지지를 받아 광주·전남지역 제2당으로 떠올랐던 통합진보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극심한 패닉상태에 빠졌다.

오랜만에 찾아온 '호재'를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파동과 폭력사태로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광주·전남지역 당원들은 4·11 총선의 바람을 타고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진입까지 노렸던 만큼 이번 파동이 급격한 정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당권파인 옛 민주당 당원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풀이할지 주목된다.

반면, 비당권파인 임택·윤남실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당원과 광주 시민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성찰과 혁신의 기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파인 옛 민주당당 세력은 경기동부 연합과 광주·전남 연합이 핵심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고, 인천 연합과 울산 연합 등이 비주류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연합은 열성적인 핵심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연합에선 장원섭, 김선동, 오병윤 등이 사무총장을 거친데다 7명의 지역구 당선자에도 김선동·오병윤 2명이 포함됐다.

◇'호재' 날릴 판=통합진보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광주·전남 정당득표율 18%라는 지지를 얻으면서 민주당연합 뒷받침을 위협했다. 전남에서는 김선동 의원이 순천시 장 출신의 민주당당 노관규 후보를 꺾었고, 야권연대 후보였지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오병윤 후보가 당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분위기가 고무됐다. 특히 총선 분위기를 몰아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최

초 단체장 당선 등을 노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광주·전남 당원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에 대항할만한 진보정당으로 자리했다는 자부심을 한꺼번에 날린데다 이번 폭력사태의 핵심인 당권파가 주류라는 점에서도 지역민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한 관계자는 "4·11 총선을 기반으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안타깝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과 당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며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어려움을 잘 추스르고 노력해 다시 한번 지역민에게 보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시민 "당권파서 당·대권 제안했으나 거절"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14일 "지난 5~6개월간 당을 같이하는 동안 당권을 쥐고 하던 분들이 저에 대해 대선 후보든 당대표든 하고 싶다면 같이 해 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해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처럼 '당권거래설'을 일부 인정했다. 그동안 정치권에는 당권파가 유 대표에게 당대표를 줄 테니 당권을 달라 했다는 당권거래설이 나왔으나 당권파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유 공동대표는 "어느 날 누구와의 만남에서 제안했다는 것이라기보다 통합 전부터 논의해 오는 과정에서였다"며 "몇 달간 그분들을 지켜본 결과, 이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파당을 짓게 되면 큰일나겠다고 생각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것보다는 당을 제대로 국민이 속속들이 알 때 더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야권연대 회의론 고개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관련 비판·우려 목소리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부정 의혹이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민주당당 내에서 야권연대 회의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비대위원회의나 당 대변인단을 통해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지속 여부에 대한 어떤 공식적 발언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 상황이 지속한다면 더 이상 연대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야권연대를 깨지는 애기도 많다"며 "(진보당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권연대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태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전한

다"고 덧붙였다.

4선의 김영환 의원은 야권연대 파기를 공식 제기했다. 그는 지난 11일 블로그에서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는 애당초 하나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였다"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무능한 진보의 족쇄에 갇혀 있는 동안 오랜 우리의 관객이 등을 돌렸다. 이번 일을 통해 민주당통합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권교체의 발상을 바로 차고 구정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야권연대를 당장 포기하지는 주장이 주류는 아니다. 하지만, 비판의 수위는 '연대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14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와 관련, "진보에 대한 오해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 무작정 좌파를 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이 안전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진보는 국민의 삶을 제일로 삼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끊임없이 개선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맹목적인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어제 폭력사태는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라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자정능력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모바일 경선 부정 논란 진상 규명될까

진상조사단 활동 주목...당내선 낙천 후보 '딴지걸기' 지적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이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당에서도 모바일 경선 부정 논란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통합당은 '모바일 경선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단장에 이학영 당선자, 조사단원에 진성미·은수미·이원욱·박민수 당선자 등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바일 경선조사단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선과정을 파악하여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모바일 경선 관리가 공신력이 없는 두 업체의 주관하에 이뤄졌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는 하드디스크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최근 급하게 파괴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 내외에서는 친노(친노무현)계 독식과 밀실공천 등의 불만이 제기됐던 만큼 조사 결과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나올 경우 민주당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 지도부가 하는 수 없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당 관계자는 "모바일 경선과 관련, 당 내에는 각종 설이 난무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아니 밝히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내에서는 모바일 부정 경선 주장에 대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딴지걸기'라는 지적도 있어서 실체가 없는 단순한 의혹 제기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김한길·강기정 잇단 출마 선언

달아오르는 민주 당권 경쟁

민주당통합 당대표 경선에 나설 도전자들이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면서 당권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해찬(60) 상임고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보완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6·9 임시전대 출마를 선언했다.

김한길(59) 19대 총선 당선자도 "친노 친박이 아니라 친노 친박을 모두 떼어버리고 우

리당 모두 '대선승리'라는 하나의 명찰을 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출마표를 던졌다.

강기정(48) 의원은 이날 '호남 대표론'을 전면에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호남에서 열정적 지지를 만들어내는 게 역전의 시작"이라며 "저는 대선 승리의 조건인 호남과 민주화세력, 나아가 2040세대의 지지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말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3일에도 손학규계 조정식 의원을 포함한 486계 대표주자인 이상호 당선자, 문용식 인터넷 소용위원장 등 3명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탈계파, 기득권 탈피를 강조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역할분담론을 내세우며 비판 속에서 당권경쟁의 시동을 걸었던 이해찬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해찬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 측과 이에 맞서는 비노 진영의 김한길 후보와 이상호 후보 등 간의 경쟁 구도를 축으로 당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매매 교환 전문 빌딩, 모텔,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예식장을 급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북도 일원의 무자가 차가 없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위항정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푼 챙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우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우나 (매매)

지역 # 북구 삼각동 (사우나 현 삼일동) 면적 # 대지 19000평, 건물 : 2500평

지역 # 칠산지구 월계동 (무인텔 공매) 면적 # 대지 : 338평, 건물 : 440평 객실 : 22실

지역 # 광천리1번 부근 모델하우스(사용가능) 면적 # 대지 : 91000평, 건물 : 2803평

지역 # 봉선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 # 수원지구 롯데메이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 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 # 정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실전투자반 / 회비 330만원
- 유차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투자자 모집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특이점 특허등록 : 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법원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주택 / 근린시설

- ▷영광동 영광을 2중주거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물90평
- 김정기2억 최저가1억1천만
- ▷남구 월산동 상암지역 근린시설 대지330평 건물400평
- 김정기2억2천만 최저가1억4천만
- ▷동구 지산동 자연복지 근린상가 대지260평 건물95평
- 김정기1억8천만 최저가1억2천만

단독주택

- ▷서구 봉성동 2중주거 2중주택 대지70평 건물81평
- 김정기2억7천만 최저가1억9천만
- ▷서구 화정동 2중주택 대지70평 건물56평
- 김정기1억8천만 최저가1억4천만

전원주택 부지 / 창고 부지

- ▷봉선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 김정기1억3천만 최저가1억4천만
- ▷광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 김정기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운천방향 4차선도로면 관리지역
-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무안군 신화리 농림지역 답 3,000평 매매1억5천만

☎ 문의010-4911-4989 (062-268-8949)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 ☞ 오전 :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 ☞ 감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실전투자반 : 매주 토요일

- ☞ 오전 : 10시(임장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 ☞ 감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